

# 1930년대 미디어성(メディア性)의 벽소설(壁小説) 연구\*

-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작품과 평론을 중심으로 -

김대양\*\*  
daeyang76@hanmail.net

## <目次>

- |                               |                           |
|-------------------------------|---------------------------|
| 1. 서론                         | 3. 고바야시 다키지의 벽소설(壁小説)과 평론 |
| 2. 1930년대 시대 상황과 벽소설(壁小説)의 수용 | 4. 결론                     |

主題語: 고바야시 다키지(Takiji Kobayashi), 벽소설(wall novel), 미디어성(mediality), 문학기법(literary technique), 아지프로(agitation propaganda)

## 1. 서론

본 연구는 미디어(メディア)적 성격을 띤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1903-1933 이하 다키지)의 벽소설(壁小説)에 관한 연구이다.

벽소설이란 말 그대로 벽에다 써 붙이는 소설로써, 선동적이거나 호소적인 내용을 담은 극히 짧은 소설이다. 먼저 벽소설의 등장에 앞서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관리자에 맞선 주문, 의견, 정치적인 선전 등 공장노동자들에 의해 쓰여 편집된 벽신문(壁新聞)이 러시아의 문단에서 문제가 되었다. 벽신문은 그 후 독일 등에서도 발달한 소형식(小形式)의 문화 활동의 하나였다. 1930년 이후, 작가 동맹에서도 취한 잡지 『전기(戰旗)』나 『나프(ナッフ)』의 지면상에서 선전된 벽신문에 실린 장편(掌篇)소설이 바로 벽소설이다.<sup>1)</sup>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에서는 조직의 소식이나 여러 가지 뉴스, 광고, 정치적·시대적인 내용까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선전용 전단(チラシ, ビラ)이나 포스터(ポスター)적인 성격을 띤 벽소설이 활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0324)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1) 阿部誠文(1977)『小林多喜二—その試行的文学—』はるひろ社, p.134

이런 각종 미디어는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에 있어서 불가결한 공간이었다. 일본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다키지 역시 이런 미디어의 공간을 활용하여 1930년대 초에 벽소설을 썼다. 다키지가 집필한 벽소설은 『편지(テガミ)』(1931.6.30.), 『프롤레타리아의 수신(プロレタリアの修身)』(1931.7.), 『부정할 수 없는 사실(争われない事実)』(1931.8.17.), 『7월 26일의 경험(七月二十六日の経験)』(1931.8.20.), 『아버지 돌아가다(父帰る)』(1931.9.3.), 『상처(疵)』(1931.11.14.), 『이모의 길(母妹の途)』(1931.12.), 『반장의 소원(級長の願い)』(1931.12.10.)까지 총 8편이 있다.

벽소설은 주제, 구성, 발표 기관, 조직 그리고 넓게는 사회까지 영향력이 크고 무엇보다 현실의 절박한 문제들을 빨리 인식하여 그 문제 해결에 대중을 추동하는 호소성이 강하다. 이런 점을 간파한 다키지는 문학적 방법의 하나이자 전략적인 구도로써 실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벽소설을 집필했고 그렇게 하여 벽소설을 접하는 사람들을 아지프로(agitation propaganda) 화합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다키지의 벽소설은 일본의 근대를 이해하기 위해 매우 긴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벽소설과 관련된 평론에 관한 연구 또한 간과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는 연구 대상이 작가의 생애나 그의 소설 작품 등에 관한 연구와 저서가 대부분이다. 벽소설이라는 문학적 방법을 가지고 다른 형식의 문학 형태였다는 시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근래에 들어와서 시마무라 데루(島村輝)가 『경계의 근대 일본문학(臨界の近代日本文学)』(世織書房, 1999)을 시작으로 가메이 히데오(亀井秀雄) 「고바야시 다키지의 『편지』-「벽소설」의 실험성(小林多喜二の『テガミ』-「壁小説」の実験性-)」(小樽文学館, 2003), 우도 도시오(右遠俊郎)의 『고바야시 다키지 사론(小林多喜二私論)』(本の泉社, 2008)등에서 다키지의 벽소설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우선 시마무라 데루의 『경계의 근대 일본문학』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발표된 근대문학에 관한 논문집으로써 프롤레타리아문학, 메이지 시대의 미디어(メディア), 일본 근대 작가의 작품과 근대문학의 이야기 구조에 대하여 논했다. 1부는 메이지 미디어론(メディア論)으로써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등의 텍스트와 메이지 시대 저널리즘의 언설편제(言説編制)에 관계되는 것을 논했다. 2부에서는 미야자와 겐지론(宮沢賢治論), 3부에서는 고바야시 다키지론(小林多喜二論) 4부에서는 이야기 구조론(構造論)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전중(戦中)·전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텍스트를 예로 들며 분석했다. 특히 시마무라 데루의 「「벽소설」의 방법(「壁小説」の方法)」은 벽소설의 정의, 집필 의도, 소설 기법, 구성, 내용 등을 고바야시 다키지의 『구원 뉴스 넘버18 부록(救援ニュースNo. 18. 附録)』과 『편지(テガミ)』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가메이 히데오의 「고바야시 다키지의 『편지』-『벽소설』의 실험성」은 벽소설의 특징과 ‘벽’이라는 미디어, 작자의 변용 등을 벽소설 『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벽소설이 구체적인 장소에 붙여져 읽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소설이 생산되고 유통되어 향유되는 본연의 자세와 그것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또 그 관계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등 벽소설을 실제로 구체적인 장소에 붙여진 것으로써 파악하는 시점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도 도시오의 『고바야시 다키지 사론』은 초기 단편부터 『방설림(防雪林)』, 『1928년 3월 15일(一九二八年三月十五日)』, 『게 가공선(蟹工船)』, 『당생활자(党生活者)』 등과 관련한 작품론을 10편 정도 다루고 있다. 작가인 저자는 소설을 쓰는 작가의 시점에서 ‘나(私)’를 논하고 지식인의 문제를 고찰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벽소설(プロレタリア文学の壁小説)」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있어서 장편(掌編)·벽소설은 1931년 전반부터 1933년 전반까지 약 2년에 걸쳐 「문학신문(文学新聞)」 및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주된 발표 무대였으며, 그 실험은 전후의 민주주의 문학운동 안에서 벽소설로서는 다시 활약하지는 못했다고 논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키지의 벽소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일본에서도 다키지의 벽소설 8편 중 한두 편 정도만 거론되고 있을 뿐 다키지의 벽소설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다키지의 벽소설뿐만 아니라 평론「벽소설과 짧은 단편소설(壁小説と『短い』短編小説)」(1931.4.20)도 함께 살펴본다. 이는 문학의 기법으로 형식만을 취하고 소설과는 또 다른 성격인 벽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특수한 표현행위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저항한 다키지의 시대 의식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 1930년대 시대 상황과 벽소설(壁小説)의 수용

다키지가 전략적인 도구로써 실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수용한 벽소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벽소설과 평론뿐만 아니라 벽소설을 발표한 1930년대 초 일본의 사회 배경과 다키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 초 일본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다. 성숙하지 못한 일본의 금융 산업은 이미 부실화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일본 자본가

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좋은 기회로 삼았다. 자본가들은 금융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재벌과 정치인들은 결탁하여 불미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대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시련을 겪은 일본의 소규모 상인, 해고당한 노동자, 토지에서 쫓겨난 소작인 등 일반 대중들의 지배 권력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점점 고조되어 갔다. 결국 그 반감과 분노로 인해 노동쟁의, 소작쟁의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면직물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했다.

다키지도 학생 시절부터 몹시 곤궁한 집안의 환경과 당시의 심각한 불황에서 온 사회불안 등의 영향으로 노동운동에 참가하게 된다. 실제로 다키지의 집 근처인 오타루의 항만에는 여러 곳의 다코베야(タコ部屋)<sup>2)</sup>가 있었고 다키지는 그곳에서 노동자들의 혹사당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목도했다. 구라타 미노루(倉田稔)의 「쇼와 초기의 고바야시 다키지(昭和の初めの小林多喜二)」에 의하면 “당시 오타루시(小樽市)에는 많은 감옥방이 있었다. 오타루 항만 확장, 건설 등은 감옥방에 있는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감옥방은 명석이 깔린 작은방으로 노동자는 추운 겨울에도 상반신을 벗고 화차로 흠을 날랐다. 실수하면 삽으로 맞았다. 아침은 된장국과 단무지만으로 식사를 했고,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 채로 먹게 했다. 여기에는 조선인도 많이 있었다. 오타루의 마을은 감옥방 혹은 다코베야(タコ部屋)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sup>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키지는 1928년 3월 15일에 일어난 ‘3.15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1928년 3월 15일』을 발표한다. 이 작품으로 인해 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 일명 특고)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1929년에는 북양어업의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게 가공선』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소노 소작쟁의(磯野小作争議)를 소설의 무대화한 『부채지주』를 발표하고 이 작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근무하던 다쿠쇼쿠(拓殖) 은행에서도 사실상 해고를 당한다. 해고당한 후 다키지는 동경으로 상경하여 중앙에서 프로문학의 중심적 작가로서의 본격적 작품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 후 1930년 5월 23일 오사카에서 일본공산당의 자금원조 혐의로 체포되지만 금방 석방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21일에 또다시 불경죄로 추가 기소되고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도요타마(豊多摩)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후 1931년 1월 22일에 보석으로 풀려나고 10월에는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하고 지하에서 활동을 계속한다. 이 시기에 다키지는 디켄즈, 발자크 등의 외국

2) 다코베야(タコ部屋)는 주로 전전(戰前) 홋카이도에서 노동자를 상당히 오동안 구속하고 비인간적 환경에서 가혹한 육체노동을 강요당한 노동자들의 숙소를 말하며 감옥방(監獄部屋)이라고도 한다.

3) 倉田稔(1997)「昭和の初めの小林多喜二」『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第93輯』小樽商科大学, pp.71-87

근대 고전문학을 접하고 자기 문학이 앞으로 어떻게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키지는 일본에서 프로문학 작가로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외국의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문학적으로 막다름에 직면했음을 느꼈고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자기 문학에 대해 ‘문학적 자기반성’의 차원에서 실험적 창작 방법을 시도한다. 문학적 실험으로써 다키지의 창작 상의 모색은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법적 개척이었다. 그 과정에서 다키지는 벽소설을 집필한다. 소설 기법상의 벽소설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다.

벽소설은 1930년 6월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 동맹(ナップ)의 ‘예술 대중화에 관한 결의(芸術大衆化に関する決議)’를 받아들이고 시도된 매우 짧은 소설형식으로 원고의 분량은 2~4장 정도이다. 1931년 2월 호 『전기』의 편집 노트를 보면 “이번 달 호부터 벽소설을 실었다. 벽소설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이다”라고 적혀있다. 이것은 당시 벽소설이 참신한 움직임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마무라 테루도 「『벽소설』의 방법」에서 “벽소설은 나프게의 프로문학 운동에 참가했던 많은 작가가 벽소설의 형식에 의해 작품을 썼다. 당시 수감 중이었던 다키지 역시 소설 기법상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약 반년 동안 수감생활을 마치고 집필활동에 복귀한 다키지에게 방법적 과제로써 벽소설의 형식이 이룰테면 정말 좋은 타이밍을 제시했다.”<sup>4)</sup>고 말하고 있다.

벽소설은 말 그대로 벽에 붙여진 극히 짧은 소설로써 벽소설이 읽히는 장소에서 독자를 이해시켜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록 분량을 적게 하고 주제의 재료도 매우 단순화했다. 특히 벽소설은 공장의 벽에 붙이거나 전단으로 배포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노동자 등의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게 썼다.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의 집회 장소나 회사 사원 식당 등에는 손으로 쓴 벽신문이 붙여졌는데, 이것을 소설 형식으로 작품화한 것도 있다. 보통 소설은 어디에서 읽히는가 하는 장소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읽는 장소에 따라 소설의 맥락과 의미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벽소설의 경우는 붙여진 장소의 상징적 의미가 소설의 맥락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것은 문학의 기법으로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소설과는 또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동’의 성격이 강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벽소설은 프로문학에서 새로운 표현 형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4) 島村輝(1994)「『壁小説』の方法—小林多喜二「救援ニュースNo.18.附録」と「テガミ」—」『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pp.145-146

### 3. 고바야시 다키지의 벽소설(壁小説)과 평론

‘반전(反戰), 반군국주의(反軍國主義), 제국주의(帝國主義), 노동운동(勞働運動)’ 등의 키워드는 다키지 문학에서 중요한 테마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 벽소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30년대 초 일본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혁명이 격렬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본 프로문학 작가들은 벽소설의 새로운 표현 형식을 수용하고자 잡지 『전기』(‘나프’의 기관지)에 사회운동의 장을 넓히기 위한 장편(掌編)의 형식을 제창했다. 다키지도 이런 새로운 시도에 동조하며 장편의 형식인 벽소설을 『전기』, 『중앙공론(中央公論)』 등의 미디어에 게재했다. 우도 도시오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벽소설」에 의하면 “『전기』, 『나프』에는 데즈카 히데타카(手塚英孝) 외에 50인의 작가의 21편의 단편소설과 함께 장편(掌編)·벽소설을 60편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60편에 한해서 말하자면 권말의 발표 연월일과 게재 문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는 1931년에 발표된 것이 17편, 1932년이 36편, 1933년이 5편, 1934년이 2편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933년에 발표된 5편 중 3편은 1월에 발표, 1편은 2월에 발표하고 나머지 1편은 4월이라고 되어있고 그 이후는 없다. 다키지가 학살당한 것은 1933년 2월 20일이다. 1934년의 2편 중 1편은 에구치 간(江口渙)의 「구원경작(救援耕作)」으로 아마도 개인적 역량에 의한 예외적인 것이고, 다른 1편은 미발표 유고이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있어서 장편(掌編)·벽소설은 1931년 전반부터 1933년 전반까지 약 2년 동안 「문학신문(文學新聞)」 및 프로문학의 주된 발표 무대로써 야초(野草)같이 짧게 꽃 피웠다. 그리고 그 시도는 전후의 민주주의 문학운동 안에서도 벽소설로서는 활약하지는 못했다.”<sup>5)</sup>고 한다. 이처럼 벽소설의 수명은 짧았지만 일본 프로문학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다가가려는 새로운 시도였음은 분명하다.

프로문학의 실험이었던 벽소설의 시작은 1931년 『전기』2월 호에 실린 핫타 쇼이치(堀田昇一, 1903-沒年不詳)의 「건국제를 때려 부숴라(建國祭を叩きつぶせ)」와 사타 이네코(窪川いね子=佐多稲子, 1904-1998)의 「식당 밥(食堂のめし)」으로 볼 수 있다.<sup>6)</sup> 그 당시 벽소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벽소설의 새로운 표현형식에 몇 가지 조건도 요구되었다. 벽소설의 조건에 대해 가메이 히데오는 “관심을 야기하기 쉬운 제재를 선택할 것, 심플한 스토리로 할 것, 테마가 명확할 것, 알기 쉽고 명료한 문체로 단숨에 읽을 수 있게 할 것 등이 벽소설을 쓰는 사람에게 요구되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자를 주안 해서 쓴 것이므로 때로는 쓰는 사람의 창작 의욕에 반하여 소위 순문학적 예술성의 희생이 요구되기도 했다.

5) 右遠俊郎(2008)「プロレタリア文学の壁小説」『小林多喜二私論』本の泉社, pp.144-145

6) 亀井秀雄(2003)「小林多喜二の『テガミ』—「壁小説」の実験性—」小樽文学館, p.2

하지만 당시의 프로문학의 젊은 작가들은 그런 제약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당시의 문단에 있어서 순문학적인 예술 의식을 극복하는 기회로써 삼고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에 알맞은 새로운 표현 형식을 만들려고 노력했다.”<sup>7)</sup>고 말하고 있다. 다키지는 그런 시도에 가장 의욕적인 작가였다고 할 수 있다.

다키지는 1931년 4월 20일에 평론 「벽소설과 「짧은」 단편소설」을 썼다. 여기서 다키지는 “어떤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로부터 5분이나 1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단편 작품을 써줄 수 없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경우 짧은 단편소설을 쓴다면 지극히 단순한, 작은 주제로, 읽은 순간 바로 반응이 오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경우 특히, 일본과 같이 아직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거나, 노동자들의 문화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단편소설은 더욱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벽소설과 같은 짧은 단편소설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마지막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순식간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sup>8)</sup>고 단편소설의 형식에 대해 확고히 해 두었다.

다음은 평론의 일부분이다.

벽소설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층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어디에서라도, 어느 때라도 순식간에 읽을 수 있고, 게다가 하나로 정리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그것이 노동자, 농민의 모든 회합의 장소에 붙여져 그들 대중을 직접으로 요구하는 것에 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위의 평론에서 다키지는 새로운 표현형식의 벽소설이 가지는 임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벽소설은 소설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일터의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반영한 벽소설의 창작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키지의 견해이다. 결국 벽소설과 같은 짧은 단편소설에 대해 “의식적으로 문제에 당면할 때 아나토리 루나차르스키(Anatorii Vasil’evich Lunacharskii, 1875-1933)의 소위 단순하고 초보적인 내용에 의해 노동하고 있는 문화적 수준이 낮은 층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말하고 싶은 것은 벽소설의 형식이 프로문학의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큰 영향을 주는 것”<sup>10)</sup>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다키지가 집필한 벽소설을 정리한 것이다.

7) 위의 논문, p.2

8) 小林多喜二(1993)「壁小説と「短い」短編小説」『小林多喜二全集5巻』新日本出版社, pp.256-257

9) 위의 평론, p.255

10) 위의 평론, pp.256-258

&lt;표 1&gt;

| 벽소설 제목    | 집필년도       | 기관지 명          |
|-----------|------------|----------------|
| プロレタリアの修身 | 1931.7     | 『戦旗』6・7月合併号    |
| テガミ       | 1931.6.30  | 『中央公論』8月号      |
| 争われない事実   | 1931.8.17  | 『戦旗』9月号        |
| 七月二十六日の経験 | 1931.8.20  | 『われら青年』        |
| 父帰る       | 1931.9.3   | 『労働新聞』9月3日号    |
| 疵         | 1931.11.14 | 『帝国大学新聞』11月23日 |
| 母妹の途      | 1931.12    | 『サロン』12月号      |
| 級長の願い     | 1931.12.10 | 『東京パック』32年2月号  |

위의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키지는 1931년에 집중적으로 벽소설을 썼다. 먼저 『프로레타리아의修身(プロレタリアの修身)』은 다키지가 벽소설로서는 처음으로 잡지『전기(戦旗)』에 발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가(加賀)현의 부자인 가노 오무라(家老大村)라는 번주가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집안 사무라이의 임금을 깎고 인원을 줄이는 일이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물, 학식 모든 면에서 뛰어난 다케다(武田)라는 사무라이를 선택하지 않고, 열간이로 불리는 노구치(野口)라는 사람을 선택한다. 노구치를 선택한 이유는 다케다는 늦잠을 잔다는 말도 안 되는 평계였다. 이것을 다키지는 1929년에 실제로 일어난 4·16사건<sup>11)</sup>을 예로 들어 그 시대와 운동에 빗대어 유머러스하게 적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모든 것은 사실에 의해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키지가 벽소설로써 가장 먼저 집필한 작품은 『편지(テガミ)』이다. 『편지』는 노동자인 아버지가 공장재해로 죽은 후, 남겨진 가족을 위해 무리하던 어머니마저 죽는다. 남겨진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장례의 음식을 먹어버리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비참한 생활을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의 편지라는 수기(手記) 형식으로 쓰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처지에 놓인 어린아이들의 절대적 궁핍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30년 5월에 발표한 작품 『구원 뉴스 넘버18 부록(救援ニュース No.18.附録)』(『戦旗』, 1930.5)과 같이 문장 중에 특수 가나(仮名)를 사용했다.

다키지의 『편지』에 대해 에구치 간은 1931년 7월 28일 「시사신보(時事新報)」에서 “중반에 접어들면서 처참하기 그지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숨 막힐 정도의 날카로

11) 4·16사건은 1929년 4월 16일에 일어난 일본공산당에 대한 검거사건을 말하지만, 1929년에 일어난 일련의 검거사건을 총합해서 말하기도 한다. 1929년에만 4,942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이 검거에 의해 공산당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다.

움으로 독자들의 가슴을 후빈다. 벽소설 가운데 백미다.”라고 호평했다. 그리고 미야지마 신자부로(宮島新三郎)는 1931년 7월 29일 「동경 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서 벽소설을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사건, 행동, 감정의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혹은 움직이는 가운데의 모습을 정(靜)의 한순간으로 멈추게 하는 때로는 프롤레타리아의 현미경이며, 때로는 프롤레타리아의 조각이다.”라고 말한 뒤 『편지』에 대해 “공장노동자의 부상, 죽음, 아내의 죽음, 아이들의 낙처를 죽음을 직접적이고 간결하며 알기 쉽고 명료하게 전달해 작자의 이른바 ‘중요’, 바꿔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의 정열을 벽 뒤에 감추고 있다.”고 쓰고 있다. 사카이 도쿠조(坂井徳蔵)도 1931년 7월 29일 『국민신문(国民新聞)』에서 “어머니가 죽고 아이가 굶주리는 비참한 사실을 그 어떤 감상이나 과장 없이 열의를 삼키며 쓰고 있다.”라고 평가했다.<sup>12)</sup> 다키지는 평소 자신의 창작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던 연인 다구치 다키(田口タキ)에게 『편지』가 주위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서간<sup>13)</sup>을 보낼 정도로 벽소설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벽소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争われない事実)』은 『전기』9월호에 게재하고 무서명으로 삼화도 한 장 넣었다. 이 소설은 도쿄에 간 아들이 공산당으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상경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이다. 공산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머니는 감옥의 높은 담벼락의 경계에서 빈혈을 일으키고 결국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들을 옥중에 빼앗겨버린 어머니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나중에 딸은 소작쟁의에 참가한다. 그리고 같은 달에 다키지는 국제무산 청년의 날을 위해 1931년 9월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 동맹으로부터 발행된 팸플릿인 『우리들 청년(われら青年)』에 『7월 26일의 경험(七月二十六日の経験)』을 발표한다. 여기서 다키지는 ‘전쟁 반대’의 전단을 주어진 공장노동자 구성원들이 해고, 전쟁 등의 주제로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다양한 반응을 묘사했다. 거기서 전쟁이 시작되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공장노동자와 전쟁에 아들을 잃은 공장노동자가 전쟁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를 대립적으로 그리고 있다. 텍스트에 나오는 작중 공장노동자들은 개별성을 넘어 당시 불안정한 노동자의 표상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과도기적 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인다. 이것은 1930년대의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타나는 주요한 사회문제와도 관련

12) 고바야시 다키지 저·전해선 역(2015) 『고바야시 다키지 선집Ⅲ』이론과 실천, p.87

13) 다음은 1931년 8월 1일에 다키지가 다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당신은 이미 봤겠지만, 28일 「시사(時事)」에 「벽소설의 백미(壁小説の白眉)」라는 제목으로 나의 『편지』를 격찬했다. 어제 「아사히(朝日)」에도 「국민신문(国民新聞)」에도 『편지』가 벽소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소설이 어떤 내용을 쓴 것인지 안다면 특별히 너에게 기뻐해 달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겠지. 나는 여전히 바쁘게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해서 그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을게. 이런 바쁜 와중에 정말로 좋은 작품을 써내는 게 중요하다. 이제 나는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다지기로 했다. 무더위에 바쁘게 돌아다니려고 한다. 그날 밤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어머니를 주무시게 해서 모두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한다. 여동생들과 어머니에게 안부 전해 줘” (小林多喜二(1993)『小林多喜二全集 第7巻』新日本出版社, pp.584-585)

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벽소설 『아버지 돌아가다(父帰る)』는 1931년 9월 3일 발행인 일본 노동조합 전국협의회 기관지 『노동 신문』 제32호에 후루카와 다이스케(古川大助)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 이 소설은 공산당에 들어간 남편이 도요타마 교도소에 수감되고 속옷 공장에서 일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 면회를 하러 가는 아내의 이야기이다. 아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단에 적혀있던 스트라이크에 희망을 발견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과 남겨진 부인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설정은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중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호소력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벽소설이 정치선전의 문학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벽소설 『상처(疵)』는 『제국 대학신문(帝国大学新聞)』 1931년 11월 23일 발행 제408호에 게재되었고, 스즈키 겐지(鈴木賢二)의 삽화가 1장 실렸다. 이 작품은 모플(적색구호회)이라는 조직회의에 참석한 야마나카(山中)의 어머니는 딸이 경찰에 붙잡혀서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딸과 목욕탕에 갔더니 딸의 몸이 상처투성이였다. 그 상처는 경찰의 고문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고 경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느낀다. 어머니는 당시 경찰이 국가권력을 등에 업어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존재임을 딸의 상처를 확인함으로써 그 실체를 파악한다. 『상처』는 다키지의 작품 『당생활자(党生活者)』(1932)에서 나오는 에피소드의 일부분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설정은 벽소설 『이모의 길(母妹の途)』에서도 계속된다. 이 소설은 불합친 아들을 만나러 딸과 함께 면회를 하러 가는 어머니의 이야기로, 문예잡지 『사론(サロン)』 1931년 12월 호(1권 3호)에 발표했다. 이 작품은 『전기』 1931년 9월 호에 발표한 벽소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개작 개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벽소설 『반장의 소원(級長の願い)』은 1932년 『도쿄 팩(東京パック)』 2월 호(21권 2호)에 발표했다. 이 작품은 아버지가 실직하는 바람에 빈곤으로 고민하는 반장이 학교에서 모으는 전쟁 협력비를 낼 수 없어 담임선생님께 빈곤의 원인이 된 전쟁을 하루빨리 그만두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편지 형식을 빌린 작품이다. 빈곤한 가정의 아이가 쓴 편지를 통하여 군사비를 국민 부담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렸다.

『반장의 소원』에 대해 우도 도시오는 “벽소설은 분명히 정치선전의 문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정치선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반동 공세의 어려운 시대인 만큼 벽소설의 시도는 재미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고바야시 다키지에 있어서조차 그 위상을 정말 문학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키지의 벽소설 중에서도 『편지』와 『반장의 소원』은 비교적 좋게 평가되고 있고, 모두 아이의 눈을 통해서 쓴 것인 만큼 허리를 굽혀 시선을 낮추고 빈곤의 사회성이나 전쟁의 비인간성을 아무렇지

않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좋다.”<sup>14)</sup>고 평하고 있다.

하지만 다키지의 벽소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아베 세분(阿部誠文)은 “벽소설은 극적단면(劇的斷面)이나 보편화 되어 가는 한 광경을 파악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장편소설이라면 변화해가는 것을 변화해 가는 것으로써 그 움직임에 따라 파악해 갈 수 있지만, 벽소설에서는 곤란하다. 거기에 벽소설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수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하나하나가 전체의 흐름, 전체의 지향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키지의 벽소설은 대부분이 개념적, 관념적인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 에피소드적인 단편으로 끝나고 있다. 주제의 설정 면에서 평가가 좋은 벽소설도 있지만, 문학적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남는다.”<sup>15)</sup>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키지는 193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편의 벽소설을 집필했으며 대부분이 혁명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상황이 가난, 남겨진 부모와 아내, 자식 그리고 투옥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 경찰의 검거로 투옥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갔는데, 이런 사회주의 운동의 당위성을 교도소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절박한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다키지가 말한 ‘전위의 눈(前衛の眼)’이 실현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미디어(メディア)적 성격을 띤 고바야시 다키지의 벽소설을 평론『벽소설과 『짧은』 단편소설』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다키지가 전략적인 도구로써 실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수용한 벽소설을 발표한 1930년대 초 일본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혁명이 격렬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본 프로문학 작가들이 추구한 것은 문학과 운동(=정치)이 결합한 형태의 문학이었다. 이러한 문학 형태는 일반적인 소설과는 달리 문학의 기법으로 형식만을 취하고 ‘운동’이라는 성격으로 문맥의 의존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문학 작가들은 이러한 벽소설의 새로운 표현 형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에서도 벽소설이 활용되었다. 벽소설은 현실의 절박한 문제들을 빨리 인식하여 그 문제 해결에 대중을 추동하

14) 右遠俊郎(2008)「小林多喜二の短編について」『小林多喜二私論』本の泉社, pp.141-142

15) 阿部誠文(1977)『小林多喜二—その試行的文学—』はるひろ社, pp.136-140

는 호소성이 강한데, 이런 점을 간파한 다키지 역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벽소설을 집필했다. 그리고 그의 벽소설은 다분히 아지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합법 공산당원으로서 지하활동을 한 다키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다키지는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에 읽기 쉽도록 고안된 벽소설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혁명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다키지의 벽소설에는 모든 상황이 가난, 남겨진 부모와 아내, 자식 그리고 투옥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모두 약자의 눈을 통해서 쓴 것인 만큼 시선을 낮추고 빈곤의 사회성이나 전쟁의 비인간성을 호소하고 있다. 다키지는 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담은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중들을 결집시켰고, 이런 전략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 경찰의 검거로 투옥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갔는데, 이런 사회주의 운동의 당위성을 교도소나 지하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절박한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다키지가 말한 ‘전위의 눈’이 실현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키지의 미디어성 벽소설은 전단지적 기동성과 선전효과를 의도해서 생겨났고 문화적 투쟁을 위한 무기로써 인식된다.

### 【참고문헌】

- 고바야시 다키지 저·전해선 역(2015)『고바야시 다키지 선집Ⅲ』이론과 실천, p.87  
 阿部誠文(1977)『小林多喜二—その試行的文学—』はるひろ社, pp.134-140  
 右遠俊郎(2008)『小林多喜二私論』本の泉社, pp.3-206  
 \_\_\_\_\_(2008)『小林多喜二の短編について』『小林多喜二私論』本の泉社, pp.141-145  
 亀井秀雄(2003)『小林多喜二の『テガミ』—「壁小説」の実験性—』小樽文学館, pp.1-6  
 倉田 稔(1997)『昭和の初め的小林多喜二』『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第93輯、小樽商科大学, pp.71-87  
 小林多喜二(1993)『小林多喜二全集 全7巻』新日本出版社  
 \_\_\_\_\_(1993)『壁小説と「短い」短編小説』『小林多喜二全集 5巻』新日本出版社, pp.255-258  
 島村輝(1994)『「壁小説」の方法-小林多喜二「救援ニュースNo.18.附録」と「テガミ」-』『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pp.145-146  
 \_\_\_\_\_(1999)『臨界の近代日本文学』世織書房, pp.3-458

논문투고일 : 2020년 06월 01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7월 15일  
 1차 수정일 : 2020년 08월 04일  
 2차 수정일 : 2020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8월 20일

## &lt; 要 旨 &gt;

## 1930년대 미디어성(メディア性)의 벽소설(壁小説) 연구

-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작품과 평론을 중심으로 -

김대양

본고는 미디어(メディア)적 성격을 띤 고바야시 다키지의 벽소설을 평론「벽소설과 『짧은』 단편소설」과 함께 살펴보았다. 고바야시 다키지가 전략적인 도구로써 실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수용한 벽소설은 문학의 기법으로 형식만을 취하고 일반적인 소설과는 달리 ‘운동’이라는 성격으로 문맥의 의존도가 강한 새로운 표현 형식이다. 그리고 벽소설은 현실의 절박한 문제들을 빨리 인식하여 그 문제 해결에 대중을 추동하는 호소성이 강한 아지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벽소설은 모두 약자의 눈을 통해서 쓴 것인 만큼 시선을 낮추고 빈곤의 사회성이나 전쟁의 비인간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담은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중들을 결집시켰고, 이런 전략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 경찰의 검거로 투옥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갔는데, 이런 사회주의 운동의 당위성을 교도소나 지하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절박한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고바야시 다키지가 말한 ‘전위의 눈(前衛の眼)’이 실현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A Study on the Wall novel of Mediality in the 1930's

- Focusing on the works and criticism of Takiji Kobayashi -

Kim, Dae-Yang

This paper examines Takiji Kobayashi's wall stories, which display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along with the critique of "On Wall Stories and 'Short' Short Stories." Takiji Kobayashi's wall stories, which Kobayashi adapted as a strategic tool for practical effect, only appear as a form of literary devices while, unlike novels, they are actually a new form of expression that strongly depend on the contex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what is called "movement." Also, wall stori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agitprop, which strongly appeal for the public to quickly recognize the imminent issues of reality and solve them. As much as Takiji Kobayashi's wall stories were written through the eyes of the weak, they lower their gaze and appeal to the social nature of poverty or inhumanity of war. Such pleading messages, which convey the reality of society, brought people together and such strategies effectively convey the purpose of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fact, the majority of socialists at the time were imprisoned by the police or went into hiding underground. However, the reason the desperate issues of society simply had to be emphasized despite the situation of having no choice but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socialist movements in prison or underground is in fact, as Takiji Kobayashi put it, because of the condition that 'The Eyes of Vanguard' come true.